

防災關係 用語 整備의 必要性

最近에 法律用語·行政用語等 여러 分野의 用語가 쉬운 말로 整備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保險用語도 상당히 一般들이 알아 듣기 쉽게 다듬어졌는데, 예를 들어 “告知義務”가 “계약 전 알릴 의무”로, “通知義務”가 “계약 후 알릴 의무”로 정비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防災關係 用語, 특히 우리 協會의 業務와 密接히 관련된 火災·爆發關係 用語中에서도 알아 듣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實務經驗을 통하여 切感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안다. 특히 安全點檢 實施後 그 結果를 建物 所有者에게 通報할 경우 專門用語가 過多하게 使用된다면 서어비스 面에서도 그리 좋지 않으며 그 效果가 半減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防災用語의 整備는 반드시 必要하다고 보는 것이다.

漢字에 親熟하지 못한 “한글 世代”의 增加와 잘못된 用語의 使用者가 많다는 事實〔例: flash-over를 flush over로〕도 用語整備의 必要性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게다가 關係法에서도 “거품 소화기”라고 쉽게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泡沫消火器”라고 계속 사용한다면 非專門家들에게 混亂을 주지 않을까 念慮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防災用語 가다듬기 運動을 提唱하는 바이다.

우선 文敎部가 制定한 外來語 表記原則에 어긋나는 것〔例: 카바레(誤)→카바레(正)〕, 日本式 用語〔安全弁→安全瓣〕, 어려운 漢字用語〔물 噴霧·連結撒水〕, 한글 맞춤법 원칙에 벗어나는 것〔류별→유별〕, 같은 법규·문장 내에서 同一 用語를 여러 가지로 表現한 것〔발브→밸브〕, 엉뚱하게 잘못 使用되는 것〔3E 要素中 enfacement→enforcement〕 등등 整備해야 할 分野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다.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業界나 專門人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略語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自動火災探知設備를 “자탐 설비”로, 철근 콘크리트를 “철콩”으로 표현한다면 一般人들은 알아 듣기 힘들 것이다.

또한 한글도 보편화되다시피 한 “대하여”, “관하여”, “위하여” 등의 쉬운 말들을 文章에서 구태여 “對하여”, “關하여”, “爲하여”로 쓰는 습관도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하여는 이미 行政機關에서도 오래 전에 漢字 使用을 버리기로 하였는데 아직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防災用語 가다듬기를 위하여 委員會를 組織하거나 個人的으로 研究·發表를 하는 事例가 많이 나오기를 期待해 보는 것이다. 다만 “비행기→날뜰”식의 우스꽝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사례는 없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